

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(WCPFC)

제5차 지역옵서버 프로그램(ROP)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5.4.11(금) 08:00~11:00(한국시간)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한국, 일본, 대만, 미국, 뉴지, PNA, NGO 등 약 50명
- (개최배경) '24년 기술이행위원회('24.9) 및 총회('24.12)에서 지역옵서버가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들을 검토하고, 이행평가* 시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 요청되었음

* 이행사건 파일시스템(CCFS) 사건 등재 및 이행감시제도(CMS)에 의한 회원국 평가

□ 주요내용

1. ROP 데이터 항목 최소기준(MSDF: Minimum Standard Data Fields)

- MSDF 내 항목들 중 다른 수단을 통해 수집가능한 항목들은 삭제할 것이 제안되었고, 새로운 보존관리조치 내 요구사항 반영 및 이행/과학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할 것이 제안되었음
- 삭제 제안된 항목들: 기국 등록번호, 선주, WIN 번호, IMO 번호, 선장 증명서, 어창 용량, 전장, 선박 총톤수, 마력, GPS, 표층수온, VMS, 기타 전자 장비, 어구 규격 등
- 추가 제안된 항목들: WCPFC 선박등록번호, 옵서버가 해상에서 승선/하선할 때의 위도와 경도, 투승/양승 지점의 위도와 경도, 미끼 중량, 토리라인 상공길이, 그물망코 등
- 대만과 한국은 미끼 중량은 옵서버가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

- 일본은 토리라인 상공길이는 옵서버가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
- * 공해승선검색의 경우 검색관이 여러 명이므로 측정 가능하나 옵서버는 한명임

2. CCFS 및 CMS에서 ROP 데이터 활용

- MSDF를 이행, 과학으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가 있지만, 각 항목을 이행과 과학 중 어디에 둘 것인지는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함
- 이행과 과학 모두에 두어야 할 경우들도 있을 것인바, CMS 평가기준들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
- 각 항목에 대해 옵서버가 답변하기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세분하여 예/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음
- 대만은 근로표준 보존관리조치는 '28년에 발효하므로 CCFS 및 CMS를 위해 당장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을 언급하였음
- 일본은 CCFS에 의해 기국이 통보를 받을 때 상세한 옵서버 보고서는 제공받지 않음을 제기하며, CCFS에 반영되는 방법과 반영되는 이유를 기국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
- 뉴지는 옵서버에 의한 정보만으로 이행 이슈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
- PNA는 보존관리조치와 연결이 되는 데이터 항목들을 시작점으로 CCFS에서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
- 사무국은 사전통보제도는 10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, 당시에는 옵서버 데이터가 전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으나 현재는 전자보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전통보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

- SPC는 바닷새 조치 요구사항들은 바닷새가 없는 열대해역에서는 수집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음
- 일본은 부수어획종 방류 시 줄 절단 요구사항*의 필요성을 질문하였고, PEW는 남아있는 줄이 짧아야 어류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릿줄을 절단할 경우 어종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

* 가능한 한 낚시와 가까운 지점에서 줄을 남기지 않도록 절단

3. 비어류 이전

- 한국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어류 이전('non-fish transfers') 용어를 'non-catch transfers'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고, 일본은 한국에 동의하며 ICCAT에서 사용하는 'supply services'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음
- 뉴지는 다른 기구들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IOTC에서 '비어류 이전'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

4. 향후 작업 일정

- ROP 작업반 2차 회의(화상회의)는 올해 과학위(8월) 전에 개최될 예정으로, 회원들은 추후 공지하는 일자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
- 예정된 바와 같이 올해 기술이행위원회(9월)에서 본 작업반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